

### 제22회 원로·공로장로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박상길 장로 선출



제22회 원로·공로장로회 정기총회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 12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햇빛교회에서 개최됐다.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개회예배와 정기총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석부회장 박상길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회장 서종모 장로의 인사말과 박상길 장로의 기도 후, 총회장 김만수 목사가 '성결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김규열 장로) 교단과 지교회를 위해(이창호 장로) 원로 및 공로장로회를 위해(황제돈 장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월동교회 장로들의 색소폰 연주 후 원로목사회 회장 고용복 목사를 비롯한 김상혁, 홍사진, 박광일, 민준기, 권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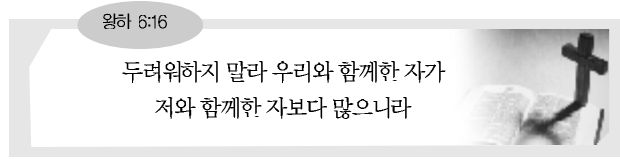
목사가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으며 정원서 장로 정기소 신치순 장로가 각각 순서를 맡아 수고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박상길 장로(햇빛)를 선출하고 공로패 수여와 안건토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신임원 명단 △직전회장 서종모 장로(신림제일) △회장 박상길 장로(햇빛) △수석부회장 정 안 장로(목일) △부회장 강신배(시냇가푸른나무) 강환준(주님앞에 제일) 정기소 장로(수원중앙) △총무 박근주 장로(더드림) △부총무 이광진 장로(왕산) △서기 최병순 장로(주님앞에 제일) △회계 이경영 장로(목일) △부회계 백종욱 장로(거룩한씨성동) △감사 이현평(동촌제일) 한은진 장로(주님앞에 제일).

### 전 부총회장 최금규 원로장로 소천 일평생 교회와 교단 위해 헌신



본 교단 71회기 부총회장을 역임한 최금규 원로장로(신월동교회)가 향년 8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한 천국환송예배가 지난 8일 오후 6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성합백산장례식장에서 드려졌다. 장례 절차를 마친 후 고인은 합백산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단총부 권순달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부서기 김성은 목사의 기도 후 총회장 김만수 목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본문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故 최금규 원로장로는 1939년 12월 10일 전북 김제 청하면에서 출생했으며 신월동교회가 개척되던 해인 1972년에 교회에 등록하고 1979년 6월 신월동교회 제1대 시무장로로 장립됐다. 최 원로장로는 그동안 교회에서는 세계선교회장, 건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교회 부흥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 또 교단적으로는 예성제 71회기 부총회장, 1994년 예성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2010년 예성증경부총회장회 회장을 지냈다.



말 6:16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 '치매 100만명 시대' 돌봄부담 눈덩이... 교회 돌봄 역할 필요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 지역교회, 노인돌봄 체계 구축해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나 민간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회들도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돌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이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다.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로 '간병 지옥',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단의 한 중견교회 목회자는 "교회에 잘 나오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며 "치매 환자 등 고령자에 대한 돌봄은 앞으로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迫切적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회 역시 치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목회적·선교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돌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섬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지역사회 돌봄 역할에 적합하다"면서 "교회가 노인 돌봄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서 이웃 섬김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교회가 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보완해 '생명 밀착형 사역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구역과 연계해 고령가구나 소외된 이웃에게 밀착한 나눠주기, 애로사항 들어주기, 병원 데려다주기 등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말씀의 초대 | 누가복음 9:12~17

###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현성 목사  
은광교회  
인천남지방회장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누가복음 9:13) 그들의 눈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보잘것없는 현실만이 보였고, 그 현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4년 전 시작된 동행, 90세 넘는 아버지는 불편한 걸음, 굽은 허리에 불구하고 아버지의 발걸음은 매주 교회로 향합니다. 종종으로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가파른 계단은 아버지의 신앙을 시험하는 듯합니다. 1층 높이 14개의 계단. 그 숫자를 헤아리며 아버지의 순한 발걸음을 따라옵니다. 집에 머무르시길 바라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확고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뒷모습, 연약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그 모습은 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단순한 예배 참석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송고한 기도인 듯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믿음, 아버지의 뒷모습은 매주 일 아침 아들에게 예배자의 찬편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절망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씩 떼를 지어 앉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끊임없이 솟아났고, 모든 사람이 배부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벧새' 들녘은 더 이상 '빈 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가 가득한 축복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여자오되' 즉, 끊임 없는 앞드림의 소통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벧새 들녘과 같은 '빈 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빈 들을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안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벧새 들녘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황량한 들녘, 남자 정장만 5천 명에 달하는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갑을 염려하며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오니이다." (누가복음 9:12) 제자들은 '빈 들'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 은커녕, 그 흔한 마을조차 없는 황량한 광야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염려에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13)

### 한성연 청년 연합 수련회를 위한 청년담당 사역자 기자회견 및 세미나

- 일 시: 2025년 4월 4일(금) 09:00 ~ 15:10
- 장 소: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6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교 53
- 참석대상: 총회장 및 청년담당 사역자 (선착순 40명)
- 주 관: 청년부 및 성청사역위원회
- 주 제: 여호와께 성결
- 참가비: 무료
- 접수문의: 총회 평신도국장 강신배 장로(010-4372-2564)  
간사 김재욱 전도사 (010-3691-7871)
- ※ 등록마감일: 2025년 3월 27일(목)  
(등록하신 모든 분에게 점심식사 및 기념품 제공/ 행운권 추첨)

● 세부시간 계획 | 행사진행: 성청사역위원회 사무총장 이규 목사 |

| 시간            | 내용         | 시간            | 내용                        |
|---------------|------------|---------------|---------------------------|
| 09:00 ~ 09:30 | 등록 및 접수    | 12:00 ~ 12:10 | 행운권 추첨(2차)                |
| 09:30 ~ 10:30 | 예배 및 간담회   | 12:10 ~ 13:30 | 점심식사                      |
| 10:30 ~ 10:40 | 행운권 추첨(1차) | 13:30 ~ 15:00 | '뉴미디어 속 지금세대' 세미나(은희승 대표) |
| 10:40 ~ 11:00 | 쉬는시간       | 15:00 ~ 15:10 | 행운권 추첨(3차)                |
| 11:00 ~ 12:00 | 기자회견       |               |                           |

### 교회 맞춤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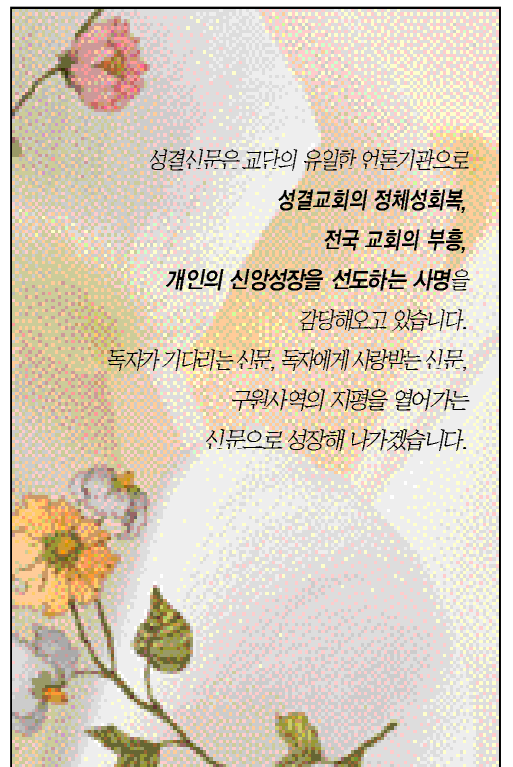


우리는행 근무 경험으로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 금리는 내리고, 금액은 올리고
- ☑ 요양원, 아파트
- ☑ 기타 부동산



박주영 010-8995-3909  
히람파트너스  
신협 20-0000849



성결신문은 교단의 유일한 언론기관으로  
성결교회의 정체성회복,  
전국 교회의 부흥,  
개인의 신앙성장을 선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독자가 기다리는 신문, 독자에게 사랑받는 신문,  
구위사역의 지평을 열어가는  
신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성결신문

03026 서울시 송파구 인왕산로171길 11(총회회관)  
대표전화 02-732-1288/070-7132-0091~5  
팩스 02-732-1285/ 홈페이지www.sknews.org